

#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호 [루계 제2525호]

주체 108  
(2019)년 1월  
19일  
토요일  
음력 12월 14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국을 방문하신 소식을

### 세계 언론들 광범히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신 소식을 8일부터 11일까지 세계 언론들이 련일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두 나라 지도자들께서는 친선적이고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중조관계와 공동의 관심사로서의 문제들에 대해 깊이있는 의견을 교환하시였으며 중요한 공동의식을 달성하시였다. 쌍방은 중조관계가 새로운 시기에 끊임없이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동하며 조선반도정세를 유효히 관리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에 공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고 전하였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대로 중국을 방문하신데 대해 지적하고 《국제사회는 조선반도문제해결을 위한 평화적인 대화를 기대하고있다.》, 《조선반도문제에 정

적해결은 보기 드문 역사적기회를 맞이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중국의 중앙TV방송, 《단동일보》, 홍콩 《대공보》, 《문화보》, 봉황위성TV방송, 인민망, 환구망, 로씨야의 따쓰통신, 리아 노보스피통신, 인데르콕스통신, 신문들인 《모스콥스키 콤포블레즈》, 《폼페르산트》, 로씨야 24TV방송, 《RT》TV방송, 예호 모스크비방송, 몽골의 몬짜메통신, 인터넷통신 잡로, 라오스신문들인 《비엔티안 타임스》, 《비엔티안 마이》, 인디아의 신문들인 《오우선 뉴스 포인트》, 《힌두스탄 타임스》, 《타임스 오브 인디아》, 《인디안 익스프레스》, 인디아-아시아통신, ANI통신, 유엔아이통신, NDTV방송, 파키스탄신문 《더 인터내셔널 뉴스》, 네팔의 신문 《라이징 네팔》, 주제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

기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주체-네팔》, 싱가포르 신문들인 《스트레이츠 타임스》, 《련합조보》, 일본의 《도쿄신보》, 쿠웨이트의 쿠나통신, 벨라리아의 주요 신문, 방송들, 프랑스신문 《몽드》, 우간다신문 《더 뉴 비전》을 비롯한 광범한 세계언론들이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중국을 방문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중국방문》, 《조선과 중국 많은 문제에서 견해일치를 보다》 등의 제목들로 우와 같은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하였다.

한편 로씨야의 100여개 언론들과 꾸바의 브렌사 라피나통신, 수리아의 사나통신, 이란의 통신, 신문, 방송들, 인디아의 인터넷통신 보이스 오브 밀리언즈, 캄보디아국가TV방송, 싱가포르 TV 《아시아소식통로》, 타이신문 《방코크 포스트》, 인도네시아의 인터넷신문 《템보》, 만산신문 《더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만산》, 일본의 교도통신, 체스코의 체메카통신, 인터넷통신 노빈기, 프랑스의 AFP통신, 도이칠란트의 데페아통신, 영국의 BBC방송, 에티오피아의 화나통신, 에리트레아신문, 민주공화국제사상연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미국의 AP통신, UPI통신, 신문 《워싱턴 포스트》, 베네수엘라의 벨레추르TV방송, VTV방송을 비롯하여 평양을 출발하신 소식, 방송, 인터넷홈페이지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신 소식, 중국방문을 마치고 조국에 돌아오신 소식을 널리 보도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본사기자

## 인민사랑의 역사를 수놓아가시는 자애로운분 국제사회계가 열렬히 칭송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멸사복무로 참다운 인민의 나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락원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국제사회의 칭송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방글라데시신문 《데일리 포크》는 다음과 같이 시술하였다.

김정은 최고령도자의 현지지도는 인민복무의 현지지도이다.

그이께서 현지지도는 단지 현실회피가 아니라 대중속에 들어가 인민의 진실한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끊임없는 현지지도에 의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날로 향상되고있다.

때문에 조선인민은 최고령도자의 현지지도를 가리켜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 《인민행현지지도》라고 부르고있다.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은 이렇게 언급하였다.

김정은각하는 인민사랑의 역사를 수놓아가시는 자애로운분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사랑하시는 그의 위대한 품이 있기에 혈연의 정으로 맺어진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는 더욱 굳건해졌다.

또한 나라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높아 울려 퍼지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피나 사회주의선경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에리트레아 신문 《알 아호바르 알 마싸이》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정치철학은 충고한 인민관을 출발점으로 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인민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

하며!》라는 구호도 제시하시였다.

인민의 존재가치를 이처럼 신성시하고 절대적으로 떠올리신데 그의 정치철학의 특징이 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정치철학의 가장 철저한 구현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김정은각하는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은 인민사랑이며 이것은 정치활동의 최고원칙, 최상의 목표로 되었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김정은각하는 령도말미에 조선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공화공화국 보건 및 인구는 조선에서는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있다, 마시평스키장만 보아도 그것을 알수 있다. 인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이처럼 멋진 대중체육행사지는 그 어디에서도 찾

아볼수 없다고 말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넷홈페이지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런 글을 올렸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매우 겸손하고 부드러운 분이시며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는 분이시다.

그이의 혁명활동을 담은 영화들을 보면 인민들의 인신도 허리굴려 받아주시고 언제나 미소를 지으시며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시는 자애로운 모습을 비출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집을 찾으며 시어사도 아이들에게 그림그리는 방법도 차근차근 가르쳐주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영상을 비웁스다면 국가령도자이시라기보다는 가장처럼 느껴진다.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시며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어 조선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새로운 생물활성비료 《갱생1》호 개발

최근 농업연구원의 10월7일연구소에서 새로운 생물활성비료 《갱생1》호를 개발하였다.

새로운 생물활성비료는 고효능 활성액체비료로서 농작물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보충하여주어 농작물이 튼튼하게 자라게 할뿐 아니라 소출을 높일수 있게 한다.

이미 농업생산에 이바지할수 있는 여러가지 성장촉진제와 아미노산미량원소비료 등이 개발되었지만 어느 한두가지의 원소에만 국한되어있었기때문에 종합적인 생물활성비료로는 되지 못하고있었다. 하여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종합

적인 생물활성비료를 개발할 목표를 세우고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생물활성비료를 리용하여 종자처리와 일부무를 생육시기별로 특성에 맞게 하면 얼마든지 알곡소출을 높일수 있으며 공작물과 남작물에 적용하였을 때 수확량이 훨씬 높다는것을 확증하였다.

지금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생물활성비료의 성능을 보다 개선하여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 연구입사사업을 즐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나가 현장도입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이 과정에서 생물활성비료를 리용하여 종자처리와 일부무를 생육시기별로 특성에 맞게 하면 얼마든지 알곡소출을 높일수 있으며 공작물과 남작물에 적용하였을 때 수확량이 훨씬 높다는것을 확증하였다.

지금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생물활성비료의 성능을 보다 개선하여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 연구입사사업을 즐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생산성과 련일 확대

골지의 견재생산기지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가 중산투쟁으로 들쭉고있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적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호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상원로동계급이 첫날부터 실적을 부쩍 올리면서 련일 생산계획을 100.5%로 수행하고있다.

집단지역성과 경쟁열풍을 고조시키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 한편 능숙한 조직자, 완강한 실천가가 되어 결연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 일꾼들의 사업기풍은 그대로 중산투쟁으로 이어지고있다.

모체공장의 여러 단위들이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중앙조종실에서는 연료와 전기 등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생산을 늘

이기 위해 원료투입으로부터 출하에 이르는 생산의 전 과정에 대한 조종을 보다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삼지연전역을 비롯한 대건설전투장들에 세멘트를 원만히 보장할 일임안고 소성직장의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은 소성로의 생산능력이 높아진데 맞게 로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질 좋은 크링카를 생산보장하고있다.

조합원료, 분탄직장에서는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분쇄설비들을 만가동 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 일꾼들의 사업기풍은 그대로 중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날마다 계획을 초과완수하고있다.

원료, 연료보장을 맡은 련합기업소상하 단위들에서 생산을 적극

추동하고있다.

상원석회석광산, 삼청광산, 화천탄광의 로동계급은 굴착기와 화물자동차들의 가동률을 높여 석회석을 비롯한 원료와 석탄을 제때에 생산보장함으로써 련합기업소적인 계획수행에 이바지하고있다.

공무직장, 주강직장 등 보장부문의 로동자들은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생산에 필요한 주강주물들, 기계가공품들을 제때에 보장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치나신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조선로동당의 대건설시상을 중산투쟁으로 받아들여 일임안고 생산에 더 큰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 판유리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 실천적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

격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찼던 지난해의 귀중한 성과들에 토대하여 오늘 우리 민족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리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리행하며 북남군사공동위협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합의서의 리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부러움방지를 위한 항시적인 련계와 협의의 리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북남장령금군사회담들도 진행되어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서 나서는 제반문제들을 진

지하게 협의하였으며 공동보도문도 채택하였다.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군사적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들을 그만두고 력사적인 북남선언들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성실히 리행해야 한다.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은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북남사이에서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서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지금은 조선반도문제에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고 말로만 웨칠 때가 아니다.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대관계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전역으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 한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영의 활로를 열어나갈수 있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외세의 압력에 눌리워 북남선언들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리행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실천적인 행동에 과감히 나서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우리 땅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수 없다.

오직 과감한 자주적결단으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갈 때 이 땅을 가장 평화로운 길로 이끄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수 있다.

본사기자 김영진

## 6. 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 평화통일로 우리 민족의 전성기를 열어나갈것을 선언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린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신년회를 가지고 올해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대토를 열어나갈것을 선언하였다.

신년회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여성분부, 민중당, 천도교,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동성공업지구기업인협의회 등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지난해 민족이

70여년동간의 분열과 대결을 끝내고 되돌릴수 없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면서 민족주의의 원칙에 따라 우리 민족이 힘을 모은다면 이루지 못할것이 없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2019년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대토를 활짝 열어 그야말로 모든 겨레가 만나고 어울리며 힘을 합치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력사는 새로운 높이의 운동으로만 이룰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남관계발전을 가로막는 내의 방해물 무력화하고 분열적책임을 청산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오는 30일에 개최되는 금강산 새해맞이런대모임을 각계각층과 함께 개막하며 그를 시작으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하고 리행을 바라는 광범한 대중의 힘을 모아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에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삼천리강토를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은 북남선언리행에서 가장

선차적인 과제이며 북남협력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것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추동하고 그 덕을 온 겨레가 실질적으로 보게 하는 근본담보라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주의주장과 리념을 뒤로 미루고 편견과 오해의 좁은 울타리를 대담하게 터트리며 당파와 소속, 정견과 신앙, 편임을 초월하여 북남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면 모두가 뜻과 힘을 합쳐 선언리행에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 《미국은 북미정상회담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남조선의 민중당이 2일 대변인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2차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반도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이 1차북미정상회담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면서 《북의 선비핵화후 보상을 고

집하는 미국의 태도 1차북미정상선언의 정신을 부정하는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하여 북은 미국이 비핵화선제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를 취한다면 더 확실히 확고한 리행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통해 밝혔다고 하면서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비핵화를 원한다면 제재완화를 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미국이 제재로 비핵화를 이룰수 있다는 망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 남조선시민단체들 평화협정체결을 요구

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평화협정운동본부들 비롯한 시민단체성원들이 6일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주변에서 집회를 가지고 조선반도평화실현을 가로막는 미국을 규탄하였다.

그들은 미국이 조선반도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겨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시위행진을 벌였다.

본사기자